

나, 너, 우리들의 이야기

그림사전

나, 너, 우리들의 이야기 그림사전

안주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유산위원회  안주문화재단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공존의 가치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

그림사전

나,
너,
우리들의 이야기

나,
너,
우리들의 이야기

그림사전



차 한 잔의 여유
김수정

"언니랑 함께 카페 간 걸 그렸어요.
또 같이 가고 싶어요."

나의 이쁜 둘들이
김옥선

"간식을 주면서
저하고 보보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가족이죠, 완전히."



행복한 가족모임
김옥선

"요즘은 명절 때도 자식들이 일찍 못 오잖아요.
다들 맛벌이라...
그래서 남편이랑 시숙이랑
이렇게 같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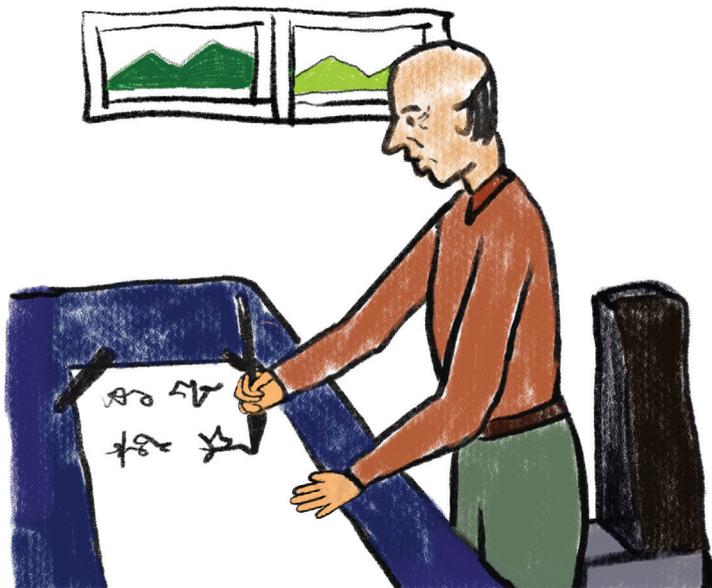


나는 그림이 좋아요
김재이

"대단한 작품성 같은 건 보이지 않지만,
그림 그리는 자체가 그냥 재미있으니까 그리는 건데
나중에는 저만의 기법으로 그려보고 싶어요."

아빠는 작업중
김재이

"제 주변 사람들을 그렸어요.
아버지도 그리고요."



우리 동네 할머니
김재이

"저희 마을이 시내가 아니고 외곽인데
연로하신 분들도 정겹게 지내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시는 동네 할머니가 있으신데
그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한사랑 선생님과 차 타고~
김재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같이
차 타고 어디 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우리들의 날
김재이

"정신장애 친구들과 함께 한
매드 프라이드 축제
모습이에요."





자수하는 나
김종임

————— "자영업하면서 얽매어 있다가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걸 떠올렸어요.
자수나 퀼트, 손뜨개를 하는 제 모습이에요."



막걸리 한잔
김현숙

"저는 원래 농사일 할 때
몸빼바지를 안 입었거든요.
지금도 후드티랑 청바지 이런 거 입고 일해요.
농사일이 힘들잖아요.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쉬면서
충전하는 거죠."

완주 1호 원예치료사
김현숙

"원예치료라는 개념이
아직 낯설었을 때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아마도 제가
완주 1호 원예치료사일 거예요."



파를펠레 할머니
변돌매

"우리 고장에서 나는 재료로도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농사짓는다고 하면 나물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파스타도 만들어 먹고 그럴 수 있거든요."



화산사랑
변돌매

"트랙터는 여성들이 할 수 없다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트랙터를 타시면서 농사도 짓고,
기타 치면서 여가도 즐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나는 운전을 잘해
이선옥

"제가 운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보는 게 많잖아요.
산도 보고, 풍경도 보고,
참 좋아요."



신난다 선옥이
이선옥

"시골에 취미생활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난타를 배우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고,
취미생활도 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인어공주 같은 내 모습
이인자

"저를 그렸어요. 좋아요.
재미있어요."





(아크릴화를 그리며) 내가 제일 잘 나가
이춘희

"저희도 농부의 일원이고
집에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림은 생활의 일부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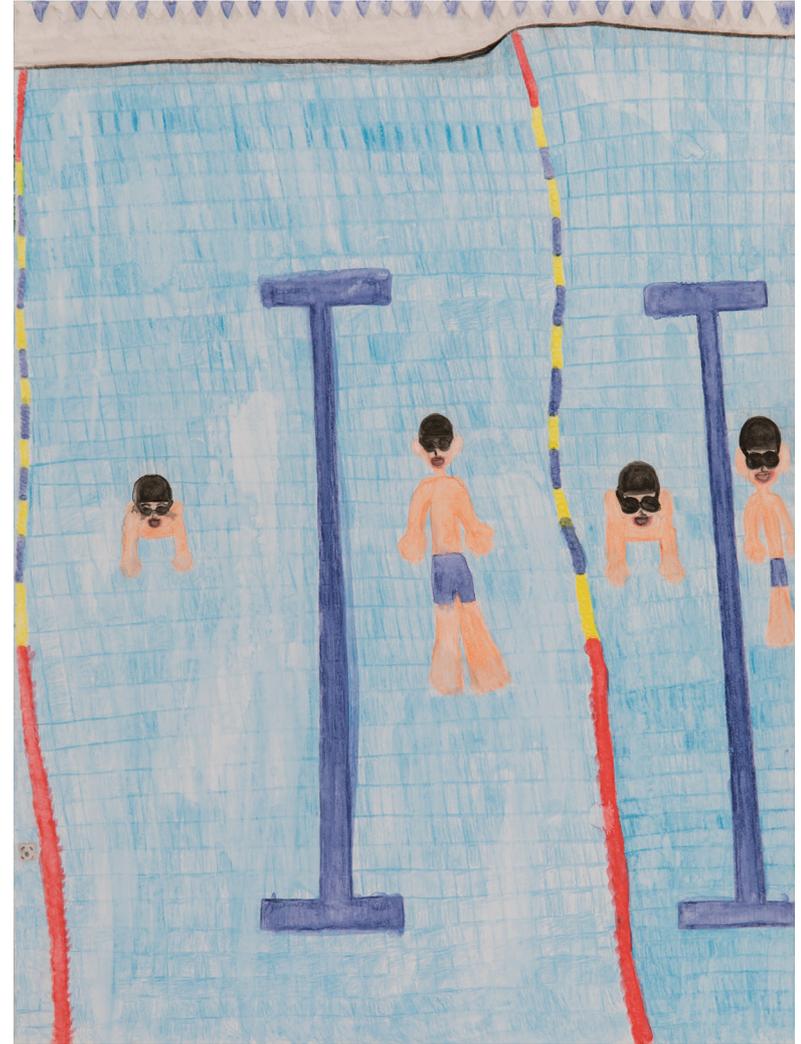


(털고무신) 행복의 발자국
이춘희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서 지역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털 고무신에 그림을 그려 나눠드렸어요."

가을 단풍 바라보기
이현준

“은행나무를 봤어요.”



내가 수영장에서
이현준

“수영을 하는 현준이에요.”



둘이 함께 산책
이현준

"엄마랑 같이 산책해요."

떨어지는 별뿔별 바라보기
이현준
"가족과 순천만국가정원에 갔어요."





판다와 나
이현준

"요즘 푸바오가 좋아요."



현준이의 좋은 손
이현준

"그림을 그리는 현준이의 손"



사과 전지하는 남편
임명화

"남편이 사과 전지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사과를 심는 걸 반대했었는데
남편이 한 그루에 수익이 얼마라며 설득했거든요.
5년이 넘었는데, 언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즐거운 바다여행
정연아

————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과
여수로 여행을 갔다왔어요."



행복한 직장생활
정연아

“제가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어요.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해요.”

김수정
·
김옥선
·
김재이
·
김종임
·
김현숙
·
변돌매
·
이선옥
·
이인자
·
이춘희
·
이현준
·
임명화
·
정연아

'문화다양성'이란?

차이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즐길 줄 아는
수용의 마음과 태도를 키우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문화다양성'을 위해서는?

첫째, 문화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보기
둘째, 다른 사람·다른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갖기
셋째,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행동해보기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모임 '그림사전'

우리의 삶은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그중에서도 사람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들이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일까요?

'그림사전'은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홍보물이나 광고 속에는 정형화된 이미지들이 가득합니다.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성, 밀짚모자와 장화를 착용한 농부,
교복을 입은 청소년,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런 이미지들이 완주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림사전'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이웃들의 삶을
진정성 있는 이미지로 담아내기 위한 시도입니다.
파스타를 만드는 어르신,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일하는 농부,
직장 생활을 하고 여행을 즐기는 장애인.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혹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웃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들은 주민 그림 동아리 '물푸레'와 장애문화예술인이 함께한
'문화다양성 이미지 제작 모임'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12명의 작가가 자신의 일상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려낸 27편의 작품들을 통해
다채로운 완주의 삶과 이야기를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